

# 동양, 폐석회 320만톤 처리 “난항”

## 시민·지역단체, 소극적 피해보상 반발 ... 매립지 용도변경에 반대

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이 합의한 <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320여만톤 처리방안>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.

<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>,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자센터, 민주노동당 남구지구당, 인천대와 인하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<폐석회의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대책위원회>는 5월20일 폐석회를 묻을 유수지 용도변경 등 폐석회 처리 계획을 중단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.

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“폐석회 처리 방안에는 폐석회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과 관련해 동양제철화학이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하도록 돼 있으나 피해조사 주체 및 피해범위, 보상기준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동양 측은 피해 신고 주민들에게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며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

이어 ▷피해보상을 위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▷피해보상이 선행되지 않는 한 폐석회를 매립할 10만6000평의 유수지 용도변경 중단 ▷시민단체와 주민대표, 남구, 남구의회로 구성된 <폐석회의 올바른 매립을 위한 공동 감시단> 구성 등을 요구했다.

대책위원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남구 주민 1만명 서명운동 및 인천시장·남구청장 면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.

한편, 인천시와 남구,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, 기업 등은 2004년 12월 말 폐석회 320여만톤을 회사공장 내 유수지에 매립하고 녹지와 체육시설을 조성해 남구에 사용권을 넘기되 유수지가 없어지는 대신 송도신도시 8공구에 40여만평의 친수공간을 만들어 인천시에 기증하도록 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. 매립은 2006년 상반기에 착수해 2007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돼 있다.

인천시는 유수지를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로 용도변경하기로 했으며, 당시 용도변경은 엄청난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.

인천시 관계자는 “이미 합의한 사항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다만 시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동양제철화학이 성의를 갖고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4/05/21>